
2023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선진지 우수사례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목 차

I	연수 개요	3
	1. 연수목적 및 필요성	3
	2. 연수 일정	3
	3. 대상지 선정 및 연수목표	3
	4. 연수경로	5
	5. 연수일정	6
	6. 연수자 명단 및 역할	7
II	연수국 일반현황	7
III	주요 방문기관	17
	1. 독일 프랑크푸르트 평화 및 갈등연구재단	17
	2. 스위스 뵈니겐 게마인데	24
	3.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대학교 평화갈등연구소	29
	4. 오스트리아 잘쯔부르크 코뮌알 시립묘지	35
	5. 체코 중재자 협회	38
IV	정책적 함의	46

연수 개요

1. 연수목적 및 필요성

- 공공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 대두
- 공공갈등이 복잡화·다양화되면서 성과적 관점의 획일화된 갈등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갈등사례별 특성 맞춤형 갈등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도입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 정부간, 부서간 협력을 통한 정책추진 과정 공유를 통한 갈등예방
 - 갈등사례 학습, 공유를 통한 갈등초기 대응 역량 강화
 - 참여와 소통, 숙의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갈등관리
 - 전문연구(교육) 기관을 활용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조정전문가 양성
- 이에 정책의 통합적 관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예방·관리하고 있는 유럽의 선진사례 조사를 통하여 우리 도의 정책방향성 설정 및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국외연수를 추진함

2. 연수일정

- 기 간 : 2023. 9. 12.(화) ~ 9. 22.(수)(7박 9일)
- 방문국가 : 유럽 4개국(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 연수인원 : 15명(도 2, 시·군 11, 충남연구원 2)
- 방문목적 : 유럽의 선진사례 조사를 통한 선제적 갈등예방 및 관리에 접목

3. 대상지 선정 및 연수목표

- 대상지 선정 사유
 - (독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갈등과정에 대한 탐색, 연구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적 갈등연구기관이 있음. 사회구성원들이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갈등연구기관 운영과 활용방안 사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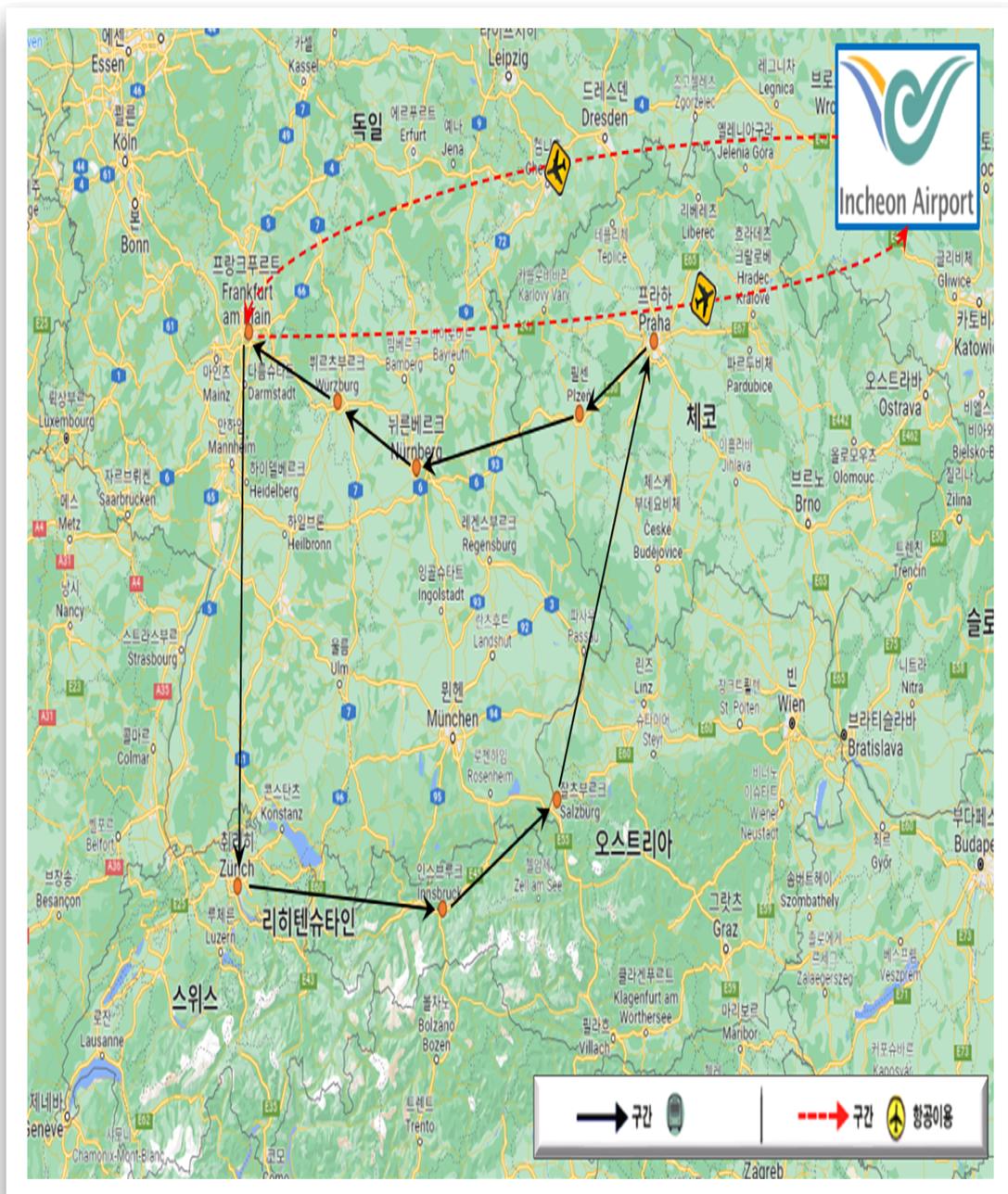
- (스위스) 게마인데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 문제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활용중임. 갈등에 대한 원칙(주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음)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공공갈등을 예방, 해결하는 과정, 주민참여에 대한 사례 조사
- (오스트리아) ①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한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의 활용과 노력에 대한 사례조사 ② 공공재적 특성을 지닌 비선호 시설의 입지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나, 공공갈등의 주요 요인임. 주민수용성을 바탕으로 도심내 입지한 비선호시설의 운영, 활용 방안에 대한 사례 조사
- (체코) 갈등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인 법률적 판단 이전에 시간,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조정·중재 제도의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 과정에 중재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공갈등에 전문인력, 제도의 활용방안 사례 조사

○ 연수기관 및 연수 목표

기관명	연수목표
① 갈등연구재단(PRIF)	- 갈등연구 전문가 그룹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공 사례 조사
② 보니겐 게마인데(지방자치단체)	- 게마인데 구성과 주민참여 방식 조사 -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추진 사례 조사
③ 인스부르크대학 평화학 연구소	- 갈등과 평화에 관한 연구·교육과정 운영 조사 - 갈등해결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④ 공원묘지 및 화장터	- 도심에 입지한 비선호 시설 공공묘지 및 화장장 방문 - 비선호 입지 및 활용 사례 학습
⑤ 갈등중재협회	- 갈등중재인 제도 조사 - 갈등중재인 활용 및 충남도 적용가능성 탐구

4. 연수경로

- 인천공항(출발) → 프랑크푸르트(독일) → 취리히(스위스) → 보니겐(스위스) → 인스부르크(오스트리아) →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 → 프라하(체코) → 프랑크푸르트(독일) → 인천공항(도착)



5. 연수일정

일자	장소	주요일정 및 내용	비고
1일차 9.12.(화)	한국 (인천) ↓ 독일 (프랑크푸르트)	▶ 출국 : 인천(11:05) ✈ 프랑크푸르트(16:45) → 총 소요시간 13시간(비행 12시간40분)	항공
2일차 9.13.(수)	독일 프랑크푸르트 ↓ 스위스 (취리히)	▶ [기관방문] 갈등연구재단 HSFK 방문 - 이동 : 프랑크푸르트(독일) → 스위스(취리히)	항공
3일차 9.14.(목)	취리히 ↓ 보니겐 ↓ 취리히	- 이동 : 취리히 → 보니겐 ▶ [기관방문] 보니겐 게마인데 민원부서 (Gemeine Bönigen) - 이동 : 보니겐 → 취리히	버스
4일차 9.15.(금)	스위스 취리히 ↓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 이동 : 취리히 → 인스부르크 ▶ [기관방문] 인스부르크 대학교 평화학부서	기차
5일차 9.16.(토)	인스부르크 ↓ 잘츠부르크	- 이동 : 인스부르크 → 잘츠부르크 ▶ [기관방문] 잘츠부르크 화장터 설립 갈등 사례 지역	기차
6일차 9.17.(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 체코 (프라하)	- 이동 : 잘츠부르크 → 프라하	버스
7일차 9.18.(월)	체코 프라하 ↓ 독일 (뉘른베르크)	▶ [기관방문] 프라하 갈등중재협회 방문 - 이동 : 프라하 → 뉘른베르크	버스
8일차 9.19.(화)	뉘른베르크 ↓ 프랑크 푸르트	- 이동 : 뉘른베르크 → 프랑크푸르트 ▶ 입국 : 프랑크푸르트(19:40) ✈ 인천(14:10) ⁺¹ → 총 소요시간 12시간(비행 11시간30분)	버스
9일차 9.20.(수)	한국 (인천)	▶ 도착 : 인천 국제공항(14:10) → 총 소요시간 12시간(비행 12시간)	

6. 연수자 명단 및 역할

○ 연 수 자 :

연번	소속(부서)	직급(직위)	성명	비 고
1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	행정5급	김 용 찬	단장
2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	행정8급	박 강 민	인솔총괄
3	공주시	행정6급	지 은 기	
4	보령시	행정6급	서 성 옥	
5	아산시	행정8급	김 보 배	
6	서산시	행정8급	이 연 수	
7	계룡시	행정8급	박 수 지	
8	금산군	행정8급	박 지 현	
9	부여군	행정6급	김 성 호	
10	서천군	행정4급	홍 성 갑	
11	홍성군	행정7급	김 인 환	
12	예산군	행정8급	이 영 준	
13	태안군	행정9급	김 혜 인	
14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사회통합연구실장	고 승 희	
15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전문연구원	장 창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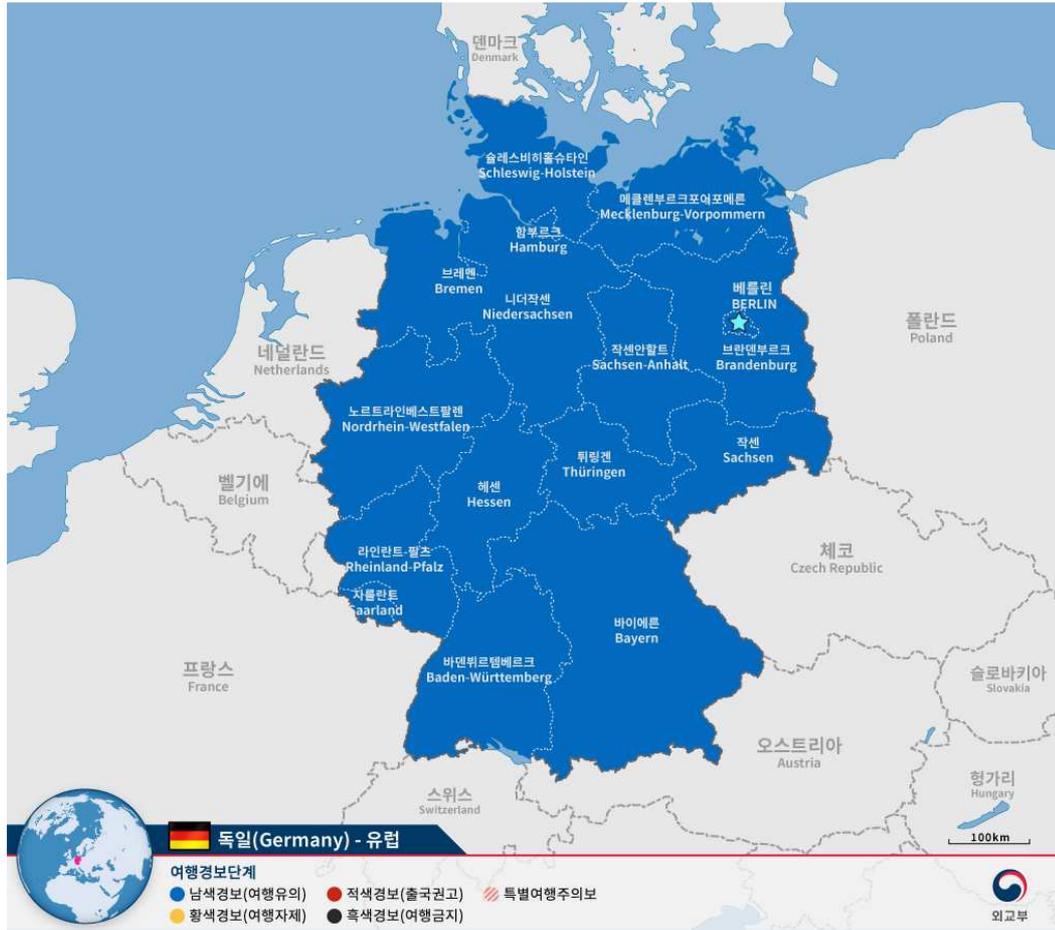
○ 역할 :

연번	소속(부서)	역할 및 임무
1조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방문 시 연수단 행사 안내 · 연수단 실무 및 안내 · 연수단 안전 및 이동경로 사전점검 대응 · 항공, 숙박, 식당 등 예약상태 확인 · 연수 보고서 작성
2조	충남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총괄 기획 · 주요 기관방문 질문 및 토론 준비 · 기관방문 시 Q&A 대응 · 연수 보고서 작성
3조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기관방문 질문 및 토론 준비 · 기관방문 시 Q&A 대응 · 연수 보고서 작성

1. 독일¹⁾

-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약칭 독일(獨逸, Deutschland)은 중부유럽과 서유럽에 위치한 연방 공화국
-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프랑스와 함께 현 유럽연합 체제를 주도하는 국가. 과거 독일과 여러번 경쟁하던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같은 유럽의 강대국들도 현재는 독일만큼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함
- 두 번의 대전에서 패한 후 미국·영국·프랑스·소련으로 이루어진 전승 4개국의 분할통치를 받다가,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됨. 이후 서독은 1950년대부터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함. 냉전이 정점에 이른 1961년에는 동독 측에서 일방적으로 베를린 시를 가르는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여 긴장이 고조됨
- 1970년 이후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대치가 완화되고 경제적 교류가 진행되었고,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에 따른 동독의 공산정권 붕괴로 1990년 독일 재통일이 이루어짐
- 통일 후 독일은 유럽연합의 핵심 회원국으로 경제강국에서 정치·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인구 8,200만 명, GDP 4조 달러로 유럽연합 최대 국가가 됨
- 독일어가 영어나 프랑스어, 스페인어만큼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가 아님에도 EU 3대 공용어에 속해 있는데, 이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처럼 유럽 내 독일과 인접한 국가들이 독일어를 많이 쓰기 때문임
- 경제적으로는 GDP(명목) 3위, GDP(PPP) 5위, 특별인출권 유로화, 1인당 GDP 18위, 국제통화기금 투표권 4위, 금 보유고 2위, 무역량 총합 3위, AIIB 지분율 4위임
-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비 세계 8위, 군사무기 수출은 세계 5위임

1) 나무위키(www.namu.wiki) 요약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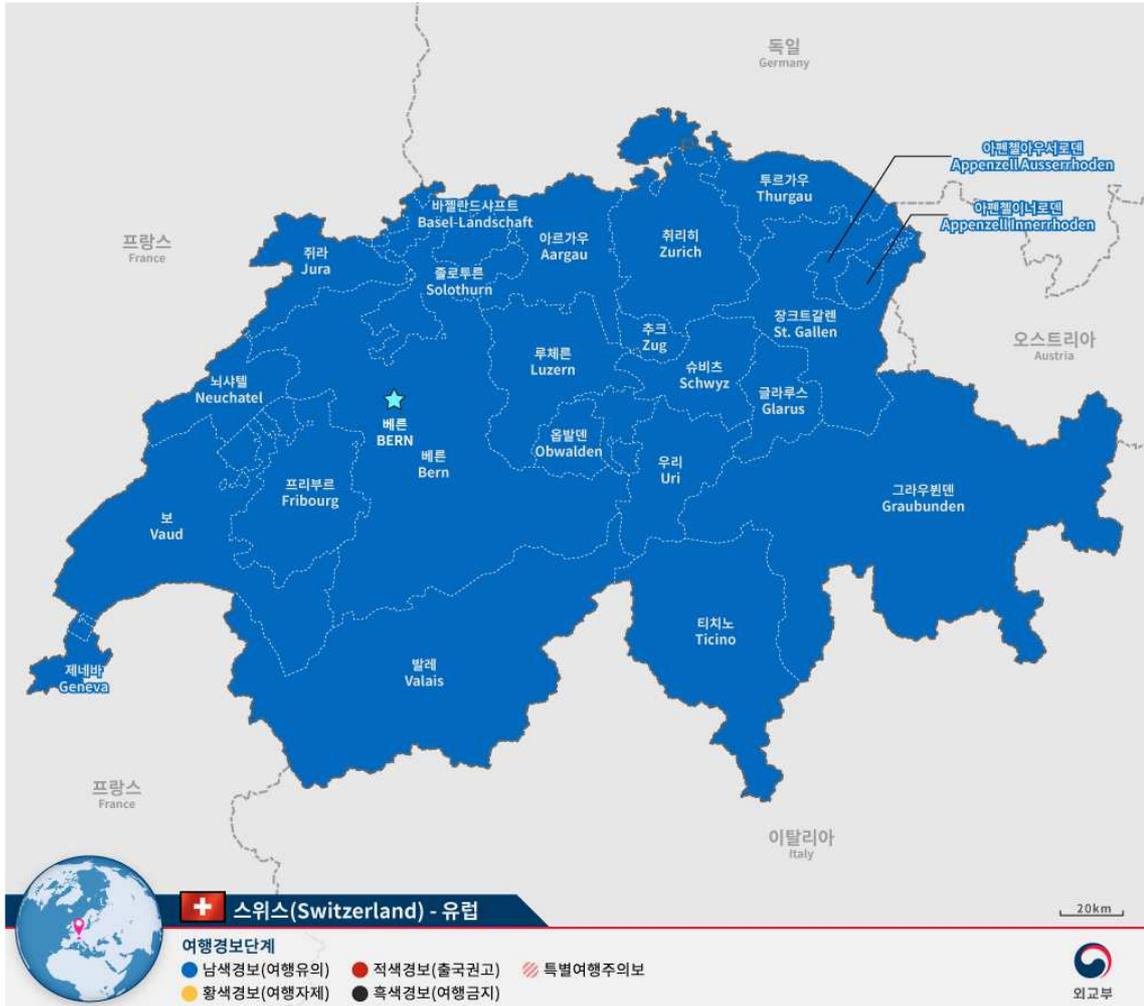
국 명	독일 (Germany)
위 치	유럽중부
수 도	베를린(Berlin)
인 구	83,230,000명(2022년 6월 기준)
면 적	357,580km ² (한반도의 약 1.6배)
기 후	온화, 다습(년평균 기온 9℃)
민족(인종)	게르만족(99%)
언 어	독일어
종 교	신교(36.4%), 구교(34.6%), 기타(29%)

*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mofa.go.kr/>) 참조

2. 스위스²⁾

- 스위스는 중부 유럽에 위치한 연방제 공화국으로 헌법상의 수도는 따로 없지만 연방의회와 국제기구가 많이 위치한 베른이 사실상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정학적 의미로 분류할 때는 중부유럽으로, 정치경제적 의미로 분류할 때는 서유럽으로 분류되기도 함
- 면적은 41,285km² (412만 9,039ha)로 네덜란드랑 비슷하며, 남한의 41%로 경상도보다 좀 더 크다
- 26개의 칸톤(미국의 주 개념과 비슷한데, 헌법상 영구적 지위를 부여받으며 사실상 별개의 나라 수준의 자치도를 가지고 있음)으로 구성됨
- 세계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국가인데도 제조업이 강세이며, 로슈와 노바티스라는 양대 축을 가진 제약업이 스위스 전체 수출의 30%를 담당하고 있음
- UBS와 크레디트스위스를 비롯한 금융산업도 매우 강세인 편이며, 유명한 시계 브랜드인 롤렉스를 비롯해 다수 브랜드들의 연고지임이
- 화폐는 스위스 프랑(CHF)을 사용함
 - 2011년 하반기부터 1프랑당 1.2유로의 최저환율제를 도입하였으나, 2015년 03월 18일 기준으로 포기함
 - 유로화 사태 시작 전인 2008년만 해도 외환보유고는 800억 달러로 대한민국의 1/4 수준이었으나, 유로화와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무제한 매입에 들어가 2014년 현재는 5,300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3위로 7위인 대한민국보다 높음
- 평균 연봉은 9만 스위스 프랑(한화 약 1억 원), 실업률은 3% 미만으로 주변 유럽 국가와 경제력 수준 차이가 크다 보니,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현재에도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정책들을 취하고 있음

2) 나무위키(www.namu.wiki) 요약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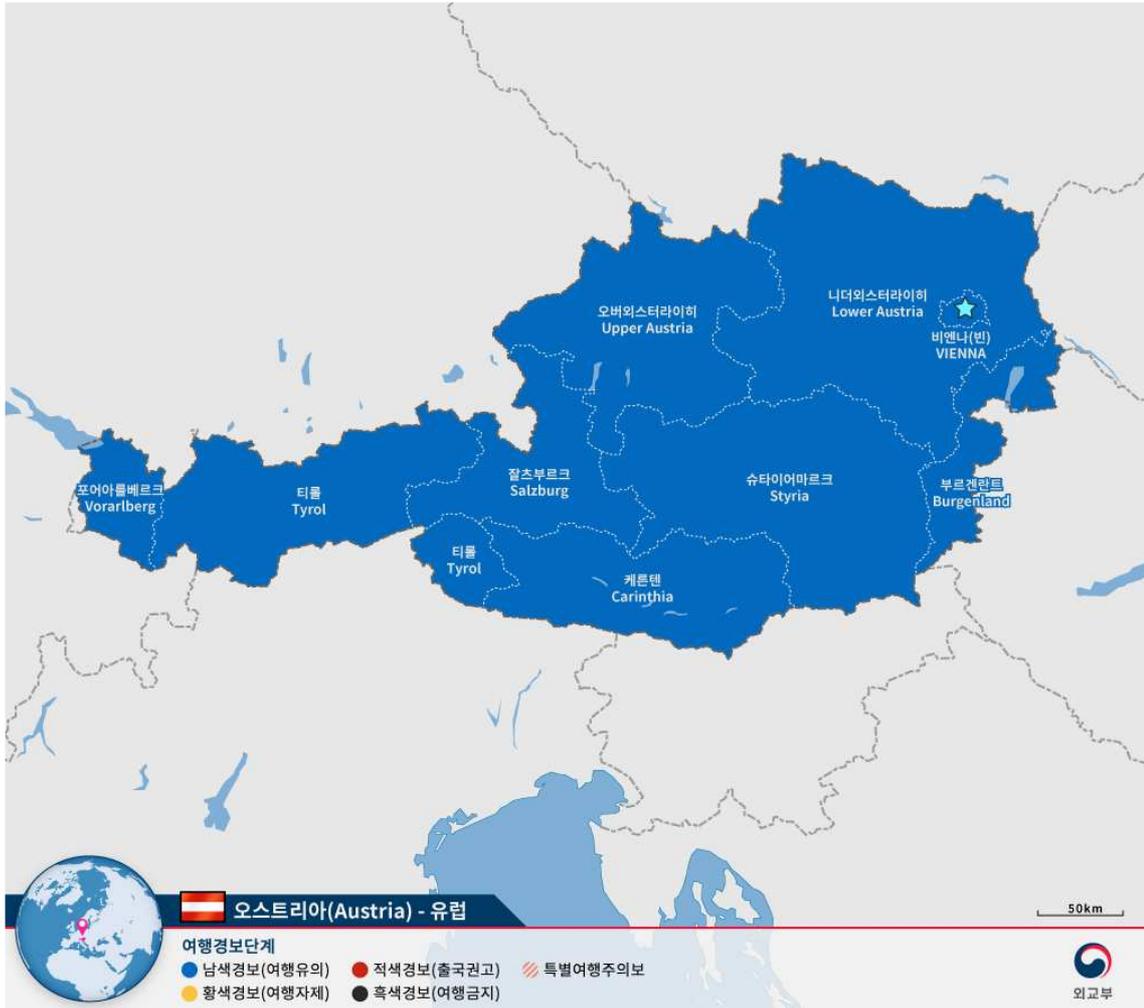
국 명	스위스 연방(Swiss Confederation)
위 치	중앙유럽의 내륙국(북위 45° ~ 47° , 동경 5° ~ 10°)
수 도	베른(Bern, 14.3만명)
인 구	874만명 (외국인 약219만명, 25.7%)(2023년 6월 기준)
면 적	4만 1293km ² (한반도의 약 1/5)
기 후	산악(고산) 기후대
민 족	독일계 65%, 프랑스계 18%, 이태리계 10%, 로만계 1%, 기타 6%
언 어	독일어(63%), 불어(23%), 이탈리아어 (8%), 로망슈어(0.5%), 기타(5.5%)
종 교	가톨릭(34%), 개신교(23%), 무교(29%) 등

*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mofa.go.kr/>) 참조

3. 오스트리아³⁾

-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동남쪽에 위치함
- 8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서북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 이웃하고 있음
- 국토면적은 83,879km²로, 국토가 알프스 산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숲의 국가이며, 덕분에 낙농업과 겨울스포츠가 성하고 있음
- 수도는 빈이므로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9,104,772명임
- 민족과 언어에서 독일과 동질적으로 1866년 이전까지는 독일과 역사를 공유하며, 슬로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탈리아 등의 유럽국가들의 역사에도 걸치고 있어 매우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임
- 유럽연합이 동구권으로 확대되면서 동유럽과 만나는 중유럽의 관문으로 경제특수를 누리고 있음
- 철강과 기계공업 위주의 탄탄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한 높은 국민소득과 충분한 복지예산을 갖춘 살기 좋은 최상위 선진국임
- 현재 EU에 가입한 것 외에는 영세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으며, 수도 빈의 유엔기구 도시(UNO City)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UNODC) 등이 본부를 두고 있어 국제회의와 분쟁조정 무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

3) 나무위키(www.namu.wiki) 요약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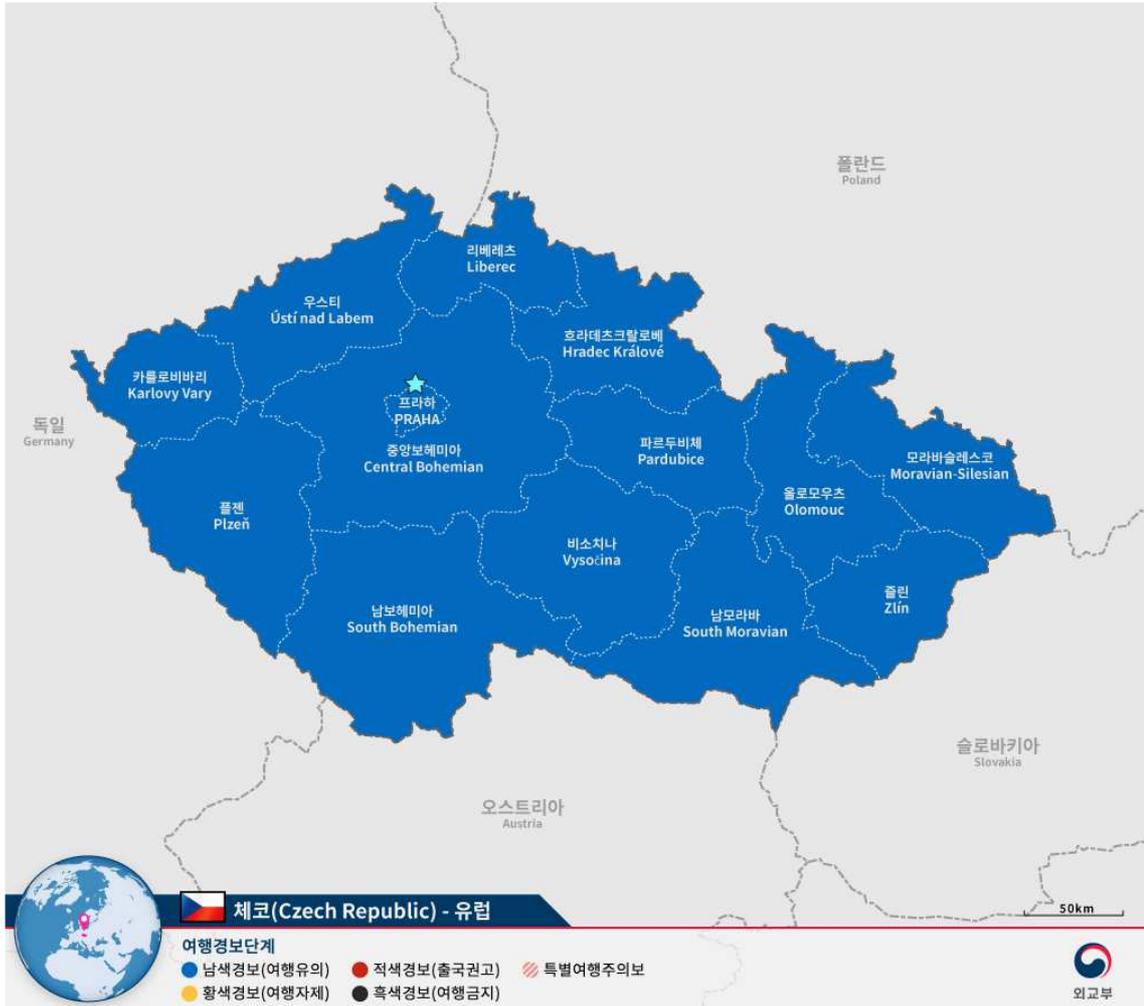
국 명	오스트리아공화국(Republic of Austria)
위 치	유럽 중부, 슬로바니아와 이탈리아의 북쪽
수 도	빈(Vienna)
인 구	910만명(2023년 6월 기준)
면 적	83,871km ²
기 후	중부 유럽의 대륙성 기후
민족(인종)	오스트리아인(91.1%), 유고슬라비아인(4%), 터키인(1.6%), 독일인(0.9%)
언 어	세르보, 크로아트어
종 교	로마가톨릭교(73.6%), 개신교(4.7%), 이슬람교(4.2%)

*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mofa.go.kr/>) 참조

4. 체코⁴⁾

- 체코어 정식 국호는 '체코 공화국(Česká republika [tʃɛskaː rɛpʊblɪka], 체스카 레푸블리카)', 약칭 국호는 '체코(Česko [tʃɛsko], 체스코)'임
 - 체코의 국명은 고대 동유럽으로부터 이주하여 중부 보헤미아 지방에 정착한 '체코' 족에서 유래함
- 1993년 1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로 분리 독립함
- 국토의 면적은 7만 8864km²로 한반도의 1/30이며, 평지와 산악의 비율이 7대 3임
-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에 둘러싸인 중부유럽의 내륙국으로 북위 48° ~51° , 동경 12° ~19° 에 위치함
- 기후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 지대이며 연평균 기온은 프라하 (Prague, Praha) 지역 기준으로 10.4°C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456.5mm (프라하 지역 기준)임
- 봄과 가을은 한국 날씨와 비슷하며, 여름은 한국보다 습도와 온도가 낮고 겨울은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서 눈과 비가 자주 내림
- 인구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1,073만 명이며, 민족 구성은 체코인 (95.8%), 우크라이나인(1.3%), 슬로바키아인(0.7%), 베트남인(0.6%), 폴란드인 (0.2%)이며 기타 민족이 1.4%를 차지함
- 수도는 프라하로 2008년 현재 약 122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지방 도시로 36만 명이 거주하는 브르노(Brno), 34만 명이 거주하는 오스트라바 (Ostrava) 등이 있음
- 언어는 체코어이며 종교는 가톨릭이 39.2%, 무신론자가 40%, 기타 종교가 11.2%임
- 주요 자원은 석탄, 철광석, 주석, 우라늄이고 주요 산업은 자동차, 석유 화학, 공작기계, 유리공업임
 - 산업 구조는 제조업이 32%, 서비스업이 60%, 건설업이 6%, 농림업이 2%를 차지함

4) 네이버 지식백과(www.naver.com) 요약 정리



국 명	체코공화국(The Czech Republic(영어), Česká republika(체코어))
위 치	중부유럽의 내륙국(북위 48° ~51° , 동경 12° ~19°)
수 도	프라하(Praha)
인 구	1,073만명(2023년 6월 기준)
면 적	78,864km ² (한반도의 1/3)
기 후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 지대
민 족	체코인(95.8%), 우크라이나인(1.3%), 슬로바키아인(0.7%), 베트남인(0.6%), 폴란드인(0.2%), 기타(1.4%)
언 어	공용어: 체코어 / 상용어: 영어, 독어
종 교	가톨릭(39.2%), 개신교(6.2%), 희랍 정교(3.4%), 무교(40%), 기타(11.2%)

*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mofa.go.kr/>) 참조

1. 독일 프랑크푸르트 평화 및 갈등연구재단

■ 방문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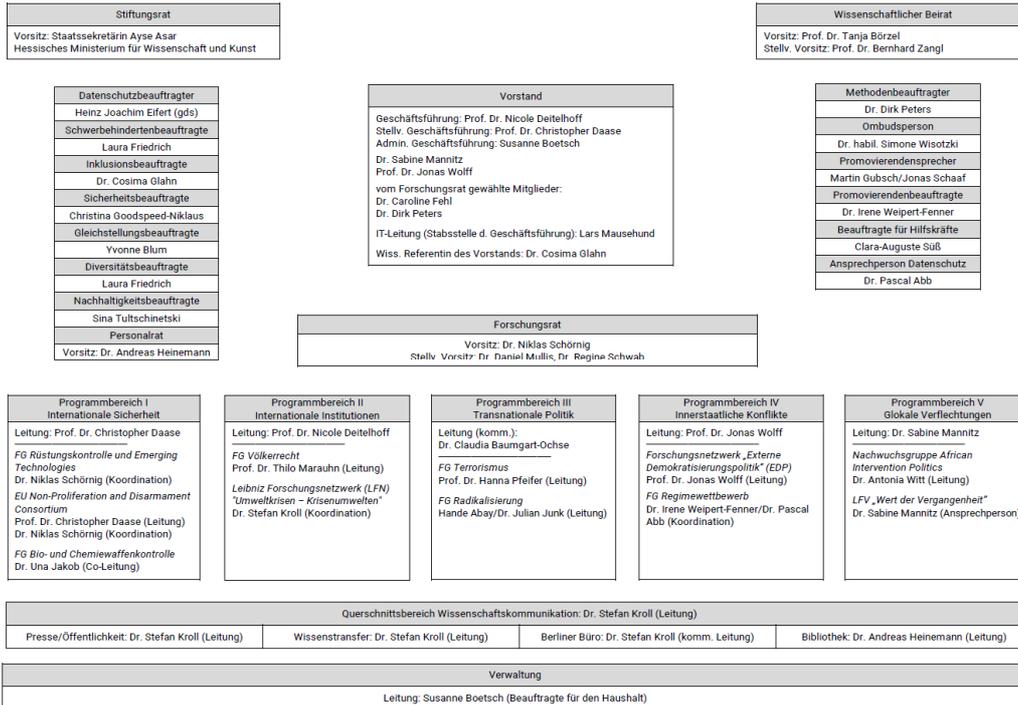
- 기관명 : 프랑크푸르트 평화 및 갈등연구재단(Leibniz-Institut für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PRIF)
- 방문일시 : 2023. 9. 13.(수), 10:00~12:00
- 면담자 : Dr. Stefan Kroll
- 주 소 : Baseler Straße 27-31, 60329 Frankfurt
- 연락처 : +49 69 95910459
- 홈페이지 : <https://www.hsfk.de/>

■ 방문 주요 내용

- 프랑크푸르트 평화 및 갈등연구재단(이하 갈등연구재단)는 독일 국내·외적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연구기관임
 - 최초 설립은 1970년 헤세주정부의 법률에 따라 독립재단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 명칭은 Leibniz-Institut Hessische Stiftung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HSFK)으로 주정부를 중심으로 독일 국내 갈등에 집중 하였으나 연구의 지속적인 국제화가 추진되면서 2023년 명칭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함
- 갈등연구재단는 운영은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연방정부 54%, 주정부 46%)으로 운영중이나, 연구수행과 정책보고서 발간에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
 -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이외에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프로젝트 진행시 자금을 지원받는 형태임
 - 갈등연구재단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내용(조직형태, 목적, 연구의 자율성, 예산 및 회계 등)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음
- 갈등연구재단에는 유동적이기는 하나 100명 이상의 직원(2022년 기준)이

근무중이며, 조직 구성은 집행이사회, 이사회, 과학자문위원회, 연구부서, 과학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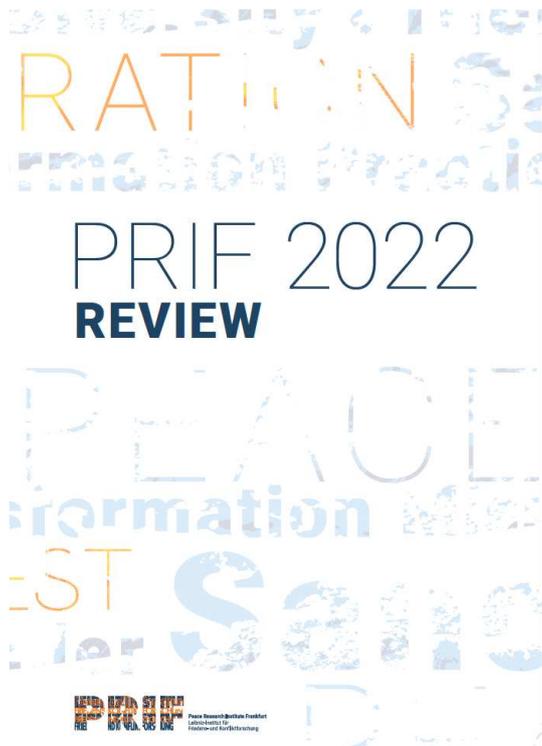
- 집행이사회 : 연구소 운영 담당
- 이사회 : 연구소 운영 감독
- 과학 자문위원회 : 연구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 지원



○ 갈등연구재단에는 주요 다섯개 연구부서가 있으며, 갈등이 발생하는 시급한 사안에 대해 핵심 이론 및 경험적 질문을 통한 다양한 관점의 체계적으로 접근을 추진중임

- 연구부서 I (국제안보) : 국제 안보 정책, 국가의 군사능력과 이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방법 연구
- 연구부서 II (국제기구) : 국제기구 및 체제의 제도적 특성과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간의 관계 연구
- 연구부서 III (초국적 정치) : 갈등과 평화의 초국가적 차원을 연구
- 연구부서 IV (국가내 갈등) : 정치 통치의 조직과 변화, 그리고 국가 내 분쟁의 국제적 차원 연구

- 연구부서V(글로벌 교차점(Glocal Junctions)) : 글로벌 상황과 지역적, 지역적, 글로벌 생활 세계와 행동 집합의 얽힘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평화 과정 연구
- 갈등연구재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갈등과 폭력의 원인에 대한 연구소의 기초 연구 결과를 평화 증진 및 확보 실천을 위한 지원기능을 제공하는 것임
- 갈등연구재단은 현대 다양한 분야의 100여건의 연구를 수행중이며, 연구 결과를 정기 간행물, 개별보고서 형태로 대중에 공개, 공공기관 및 정책 입안자에게 제공중임



PRIF 2022
REVIEW



- 갈등연구재단은 평화 및 갈등연구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자료와 전문 문헌 컬렉션을 보유한 도서관을 운영중이며, 도서관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음
- 갈등연구재단은 국내·외의 다양한 교육기관, 연구기관과 협력하고 있음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갈등연구재단의 설립 성격은 무엇인가? 정부기관인가?
 -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정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임
 - 하지만 연구활동은 내부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결과 제안이나 활용에서도 정부나 정치로부터 자연스러움
- 갈등연구재단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 본인은 연구부 소속으로 재단의 전체 운영비에 대한 추계는 어려움
 - 매년 인건비, 진행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 그룹당 3년간 60~80만 유로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과 관련한 민원·갈등 발생이 많은 편임, 갈등연구재단은 이러한 지역적 갈등보다는 거시적 갈등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가?
 - 조직이 변화되면서 최근에는 정부나 국제적 큰 프로젝트만 진행하고 있음
 - 최초 설립시 헤센주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될 때부터 지방정부 보다는 국제적인 갈등에 집중하는 편임
- 독일 내부의 문제, 지역적인 문제보다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있는가?
 - 기관의 설립된 목적이 국제적, 국가내(주정부간), 국가간 갈등 등 거시적 갈등에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갈등을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나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 갈등연구재단은 라이프니츠 협회의 회원임
 - ※ 라이프니츠 협회(Leibniz-Gemeinschaft) :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독일 비대학 연구기관 연합. 87개 비대학 연구기관 및 다른 과학기관들이 속해 있음
 - 프로젝트 형식에 따라 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를 수 있으며,

과정에 참여나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협력하고자 노력중임

○ 갈등연구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활용도는?

- 갈등연구재단의 보고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 관련 기관이나 정책입안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있음
- 연구결과 도출과 제안까지가 재단의 미션이며, 이후 보고서를 참고로한 정책과정의 활용은 그 다음단계 책임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 갈등연구재단의 연구결과는 강제성이 있는지?

- 재단이 발행하는 보고서는 연구 그자체로써 의미를 가짐
- 과정이나 결과 도출까지가 업무이며, 강제성은 없음
- 활용도와 마찬가지로 다음단계 책임자들의 의지가 중요한 문제임

○ 강제성이 없는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는가?

- 갈등연구재단이 연구주제로써 갈등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는 점은 정부기관의 관심이나 언론보도를 통한 대중의 인지도 향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갈등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며, 미디어 노출을 통한 이해관계집단의 인식변화로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함

○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관계, 독도 영유권, 일본 오염수 방류 등 주변 국가와의 큰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갈등연구재단에서 다룰 계획이나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 한국의 이슈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음
- 연구주제는 주로 EU내에서 이슈가 되는 사안들로 결정되고 있음. 연구의 제안이나 국제적 이슈가 유럽에 영향을 미친다면 연구해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됨
- 한국의 이슈들은 어느정도 결론이 내려져 있거나,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많은 주제임. 당장 결정이 된 사항은 바꿀수 없으며, 향후 영향에 대한 예측, 영향에 대한 기술적 노력,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함

- 한국, 충청남도에서는 군사시설 입지와 운영에 관련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갈등연구재단에서도 군사, 국방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중으로 이와 비슷한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가?
 - 예전에는 유럽, 독일 지역내에서도 군사시설이 많이 입지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과 갈등발생이 많았으나 최근 군사수가 줄면서 입지여건을 둘러싼 갈등 또한 자연스럽게 해소 되었음
 - 또한 그동안 다루어 본 군사분야 입지와 관련된 갈등은 한국과 다르게 주거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독일내에서 통일에 따른 동독과 서독간의 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은 어떠한가?
 - 독일이 통일된지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는 않아 아직도 동독과 서독 사이에는 다양한 분야의 차이가 있음. 서독이 앞으로 후손들에게 남길 유산과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동독의 경우 전쟁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 거시적 문제에 집중하기는 어려움 상황임
- 갈등연구재단이 한국에 소개할만한 주요성과는 무엇인가?
 - 최근 정치갈등, 페미니스트 등 남녀갈등 등 한국에서도 충분히 논쟁이 있을만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독일에서는 올해 3월부터 관련 법제정이 추진중임
 - 거시적인 갈등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관련 제도의 변화들을 모색하고 있음
 - 갈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는 이런 활동들이 유럽, 독일과 한국이 처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객관적 연구를 통한 정책의 변화에 대한 활동들이 한국에도 전해졌으면 좋겠음
- 현재 갈등연구재단의 연구분야중 핫 이슈는?
 - 아무래도 유럽 전체에서 이슈가 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음
 - 주변에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동료나 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갈등연구재단 뿐만아니라 주민들들에게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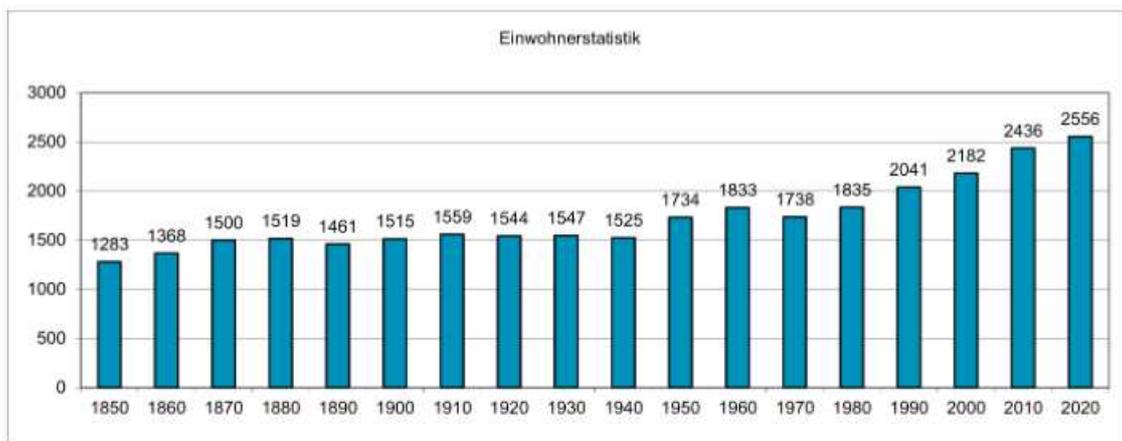
2. 스위스 뵘니겐 게마인데

■ 방문개요

- 기관명 : Gemeindeverwaltung Bönigen
- 방문일시 : 2023. 9. 14(목), 10:00~12:00
- 면담자 : Michel Ueli(Gemeindepräsident)
- 주 소 : Interlakenstrasse 6 3806 Bönigen
- 연락처 : +42-33-826-1000
- 홈페이지 : <https://www.boenige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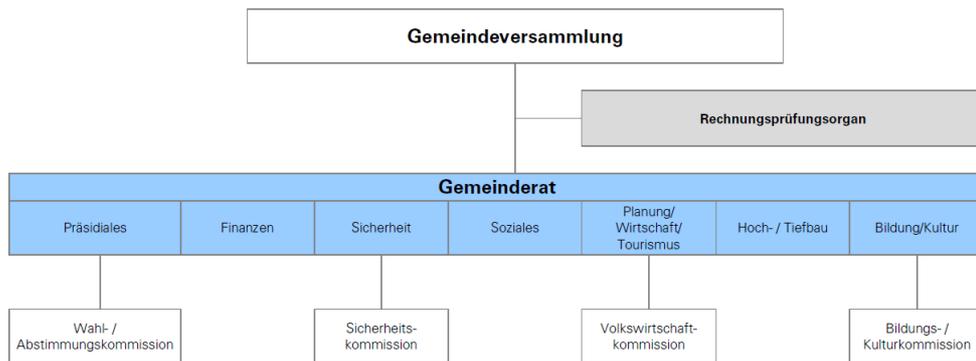
■ 방문 주요 내용

- 게마인데(Gemeinde)는 독일의 나라의 행정 구역 단위 중 최소 단위로, 수장이나 지방 의회등의 자치 제도가 있는 곳을 나타내며, 행정구역 뿐만 아니라 교구, 시민단체, 조합 등을 의미하기도 함
 - 독일 행정체계 : 연방정부(Bund)-주정부(Land) · 도시주(Stadtstaaten)-연합시군(Kreis)-게마인데(Gemeinde, 최소 행정구역)
- 뵘니겐 게마인데(Gemeindeverwaltung Bönigen)(이하 뵘니겐)는 해발 568m, 브리엔츠 호수(Lake Brienz) 하류 기슭에 위치하며, 인터라켄-오베르하슬리(Interlaken-Oberhasli) 행정 구역에 속한 자치단체임
- 뵘니겐은 23,000명이 거주하는 인터라켓 광역권에 속하며,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약 2,5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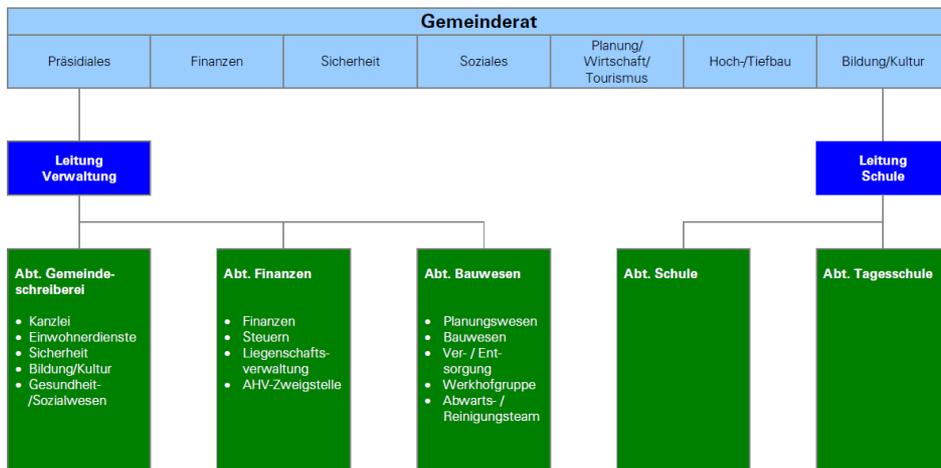


- 뵈니겐의 역사는 123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의 공동체는 1831년 베른 주 헌법에 의해 형성됨
- 뵈니겐의 주민 공동체는 실제적인 정치공동체이고, 시민 공동체는 농민 공동체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으며, 1852년 스위스의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제정될 때까지 뵈니겐의 모든 사업은 지역사회를 통해 이루어짐
- 뵈니겐의 의회 및 행정 조직은 다음과 같음
 - 뵈니겐 의회는 모두 7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있음
 - 위원회는 의장부, 재정부, 안전·경찰부, 사회부, 산업(관광)부, 건설부, 교육·문화부 등으로 구성됨

Organigramm Behörde



- 뵈니겐 행정조직은 5개 부서로 이루어짐
- 행정조직은 정책의 결정보다는 마을사업의 단계별 추진 업무를 주로 함



- 뵈니겐의 의회 및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지역주민 생활, 지역개발에 필요한 필수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적 소방, 경찰 부서, 인력은 없음
 - 소방, 경찰이 필요할 경우 뵈니겐보다 상위 행정단위 제도, 인력을 활용중임
- 뵈니겐의 의회 의원은 4개 정당 소속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게마인데와 비슷하게 주민들은 정당보다는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을 판단하여 의원을 선출함
- 주민총회는 정기적으로 1년에 두번 개최가 되고 있으며, 8만프랑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 안건, 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총회가 개최되고 있음
 - 주민총회는 민주주의의 최고기관, 즉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자 장소로 주민은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음
 - 뵈니겐에서는 지방의회 선거만 투표로 실시하며, 다른 모든 결정은 투표 권한이 있는 주민의 책임하에 주민총회에서 토론으로 결정함
 - 주민총회에서는 주요 안건(예·결산, 개발계획, 세금 징수율, 민원사항, 기타 지역현안 등)에 대한 시장 등 책임자, 안건제의자 등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짐
 - 활발한 소통을 통한 토론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참석자들은 이견이 있을 경우 즉시 의견을 말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할 권리를 상실하게됨
- 스위스의 지역정책은 지자체 정부→주정부→연방정부로 건의되어 시행되는 상향식 정책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책은 주민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 찬성일 경우 시행되는 구조임
-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은 상위 정부에만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위 정부는 반대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의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체계임
- 이러한 주민 결정 이후 주변 게마인데와 협업하여 정책을 추진함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주민총회가 개최될 때 처리 안건 수는 얼마나 되는가?
 - 작년에 개최된 두 번의 주민총회에서 4개 안건에 128명이 모여 안건 처리함
 - 주민총회 미참석자에 대해서는 우편 투표로 의견수렴과정을 진행함
 - 지방의회 선거 등 예민한 안건의 경우 비밀투표로 진행함,
- 주민총회에 처리되는 안건을 도출하는 방식은?
 - 정기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예·결산, 건설 계획등은 정례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 정책시행전 공청회 추진하고 있으며,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음
- 뵈니겐 게마인데에서 1년간 처리하는 예산은 얼마인가?
 - 1100만 프랑 정도가 뵈니겐 게마인데의 예산임
 - 예산에서 정해진대로 사업을 추진함
-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갈등사업에 대한 추진 방식은?
 - 도로 개설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을 경우 상위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한국은 농촌지역의 경우 축사 등을 혐오시설 보는 경향이 있음. 뵈니겐에서도 혐오시설의 입지에 대한 갈등 사례가 있는가?
 - 한국과는 농·축산 시설을 대하는 시각이 다름
 - 농·축산 시설을 마을에서 주민들이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거나, 식생활과 관련된 농업활동으로 보고 있어 혐오시설로 바라보지는 않음
 - 농·축산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악취도 이런 시선에서 보고 있어 특별하게 민원이나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음
- 스위스는 대도시가 적고 인구의 변화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음. 뵈니겐 게마인데는 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이주하는 주민들의 출신지와 뵈니겐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 대부분 뵈니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주변 마을에서 생활환경이나 문화가 비슷한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음
 - 주민들이 정년퇴직을 하여 조금 더 조용한 곳에서 생활하고 싶거나, 농촌 지역으로 물가가 대도시보다 싼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인구가 증가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갈등은 없는가?

-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특별한 갈등은 발생하기 않고 있음
- 뵈니겐 게마인데에서 시행중인 제도의 경우 이주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인지, 이해하고 이주하는 편이며,
- 지역내에서 3개월 거주 이후 기존 제도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또한 많지 않음



3.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대학교 평화갈등연구소

■ 방문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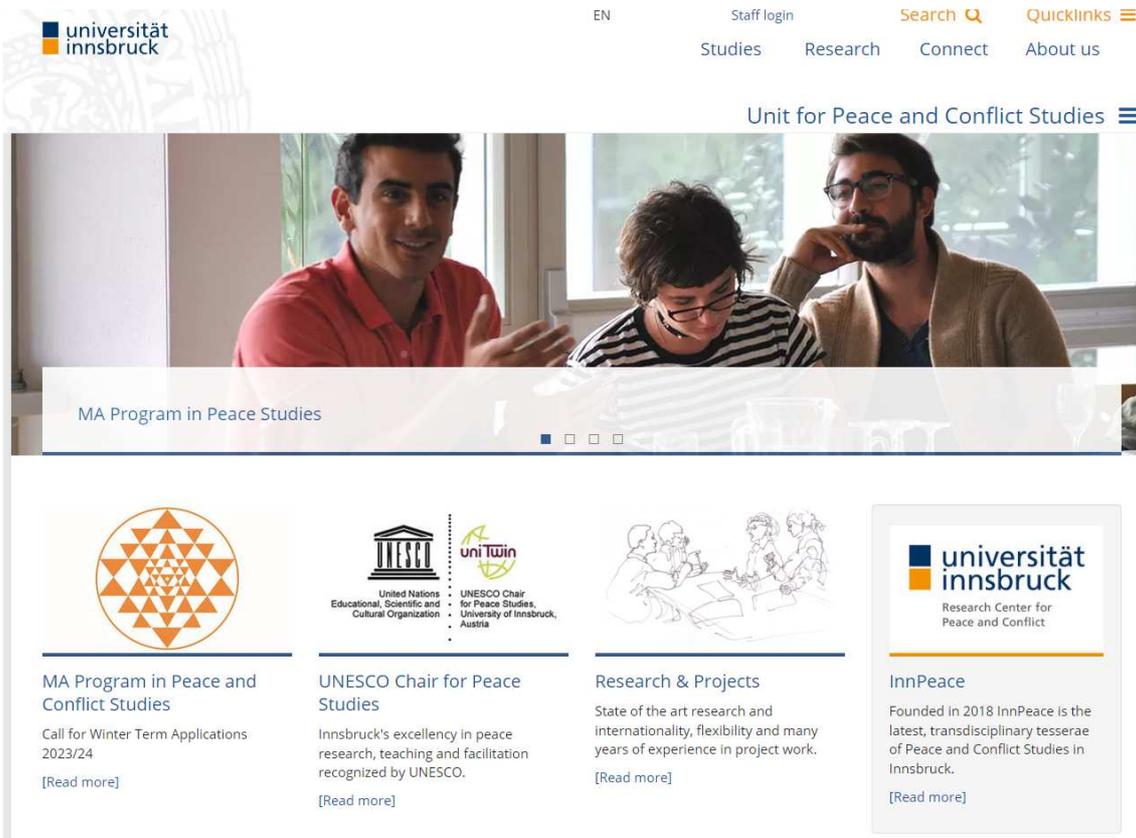
- 기관명 : Universität Innsbruck Unit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 방문일시 : 2023. 9. 15(금), 14:00~16:00
- 면담자 : Andreas Oberprantacher(Academic Director)
- 주 소 : Grillhofweg 100, 6080 Innsbruck
- 연락처 : +43-699-122-90-893
- 홈페이지 : <https://www.uibk.ac.at/peacestudies/ma-program/>

■ 방문 주요 내용

- 인스부르크 대학교(Leopold-Franzens-Universität Innsbruck)는 1669년 설립된 오스트리아 티롤주의 대학교이며, 티롤 주 안에서 가장 큰 교육 시설로 오스트리아 내 빈 대학교, 그라츠 대학교 다음으로 가장 큰 대학임
- 2000년 티롤 주정부는 인스부르크에 평화, 개발, 분쟁 관리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고, 인스부르크 대학은 프로그램의 파트너로 선정됨
- 2001년 인스부르크 대학교 사회과학부에서 시작된 평화·갈등연구소(Unit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이하 평화연구소)는 ‘평화, 개발 및 분쟁 관리 분야 고급 연구 석사(MAS)’ 과정을 시작하였으며,
- 2004년 과정 이름을 ‘평화, 개발, 안보 및 국제 분쟁 변혁 분야 석사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였음
 - 교육프로그램은 갈등과 평화에 관한 연구·교육과정이며, 갈등과 평화에 관한 연구를 넘어 인문복지평화학 수립을 위한 정규교육과정과 현장 교육 중심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중임
 - 인스부르크대학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과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 특별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음
- 2008년 평화연구소의 연구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석좌 사업으로 채택되어 갈등과 평화에 대한 혁신적인 커리큘럼과 접근방식을 인정받음

※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며, 주로 학제적 성격을 지닌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치됨
- 주요 활동으로는 교육, 연구, 학자·학생 교환, 워크숍, 세미나, 교수 프로그램 개발, 출판 등을 전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학계, 시민사회, 지역사회, 정책 결정자 사이에서 ‘싱크탱크’와 다리 역할을 수행함



- 평화연구소에서는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을 통하여 평화·갈등 분야의 연구, 훈련, 정보 및 문서화의 통합 시스템 촉진 등의 업무를 추진함
- 인스부르크대학 평화 연구프로그램(석사과정)은 5단계 모듈 과정으로 구성됨
 - 1단계: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 2단계: 평화 연구소 소개, 갈등의 변화 양상, 개발과 안전 문제 연구 관련 강의와 세미나 과정
 - 3단계: 소극적 평화와 직접적 폭력 문제에 관한 현장 실습 교육
 - 4단계: 적극적 평화와 구조적 폭력 문제에 대한 세미나
 - 5단계: 평화의 문화적 양상에 관한 워크숍



About the MA Program

Curriculum, Objectives and Structure of our MA Program.

[Read more]



Terms, Schedule & Courses

All relevant dates and courses at a glance.

[Read more]



Admission, Application, Costs & Scholarships

All crucial information regarding the application process.

[Read more]



Students' Opinions



FAQs

- 평화학과 관련된 대학으로는 오스트리아에서 유일하며, 다른 국가에도 평화학 관련 학과는 극히 드문편임
 - 평화학 과정은 갈등, 평화학 등 다양한 주제로 학과가 구성되며, 문학, 신학, 심리학 등 다양한 전공 교수가 있으며, 학생들 역시 다양한 전공 베이스를 가지고 있음
 - 인스부르크에 평화학이 있는 이유는 유대인 학대, 이탈리아 분쟁 등 국가적 갈등 상황에서 비롯됨
- 평화연구소에서 운영중인 석사과정 프로그램은 국제적 학과로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참여중임
- 평화학의 중요한 주제는 평화 교육으로 다른 나라와 프로젝트 진행중이며,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함
- 중요 프로젝트로는 이란, 몰도바, 우크라이나 내부의 갈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곧 시작되는 프로그램은 요르단-팔레스타인 갈등을 다룰 예정임

- 평화학 과정의 중점주제는 교육임
 - 교육프로그램중 평화와 분쟁의 주요주제 선정
 - 학생들간의 분쟁이나 협력을 프로젝트 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교육중임
 - 워크숍이나 교수들의 논의를 통해 분쟁 조정
 - 워크숍, 연극, 목소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임
- 오스트리아 군대와도 프로젝트 진행함
 - 오스트리아 군대는 평화주의이며, 학생들과 프로젝트 구성하여 군인들과 평화 미션을 진행함
- 학생들은 졸업 후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며, 박사학위, 국제기관, 로컬, 개발정책 중재자 등의 역할을 수행중임
 -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중이며, 중동 및 아프리카 학생들은 인종차별 등 국가현실에 부합하는 갈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본인의 관심분야에서 역량을 발휘중임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평화학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임. 학교와 연구소에서 추구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 평화에는 다양성이 있으며, 국제간의 평화가 아닌 일상적인 평화임
 - 평화는 학문적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는지가 중요하며 이런 의미가 평화적인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음
 - 평화는 갈등, 분쟁을 다양하게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것이 평화라고 생각함
- 갈등과정에서 결과로 볼 수 있는 합의 도달과 평화의 차이는?
 - 학과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임
 - 합의도달과 평화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합의 도달이 갈등의 과정에 관련된 단계라면 평화는 갈등이 해결되거나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임
- 한국에 대학에 있는 평화연구소, 일반적인 평화관련 단체들은 종교에 기반함. 여기는 어떠한가?
 - 인스부르크 대학에도 카톨릭 학과가 있으며, 연구진이나 학생들 역시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음
 - 평화학에서 다양한 종교를 수용하지만 특정한 종교를 지원하지 않음
 - 일부 연구프로젝트에서는 종교적 폭력을 주제로 하기도 함
- 국가적 지원, 유네스코 지원을 받아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대학에서 수행하는 로컬이나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있는가?
 - 일반적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련 작은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나, 대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많지 않음
 -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갈등에 대한 일반적 이론, 분쟁 해결과 방법, 필요 기간 등 필수적인 내용들을 교육하고 있음
-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교류도 계획이 있는가?
 - 한국의 상황과 가능성에는 관심이 있으나 교류할 기회가 적었음

- 기회가 된다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임
- 평화학 과정에 한국 학생이 있는가?
 - 한명정도의 석사과정생이 있으며, 졸업논문 준비중임
- 다양한 국가와의 프로젝트 진행시 연구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 국가와 공동프로젝트 진행시 해당국가에 평화학에 대한 소개와 역할을 인식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 학과 학생들이 서포트 역할을 수행함
 - 이런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임



4. 오스트리아 잘쯔부르크 코뮤날 시립묘지

■ 방문개요

- 기관명 : Stadt Salzburg Kommunalfriedhof
- 방문일시 : 2023. 9. 14(목), 10:00~12:00
- 주 소 : Gneiser Straße 8, 5024 Salzburg
- 연락처 : +43-662-8072-4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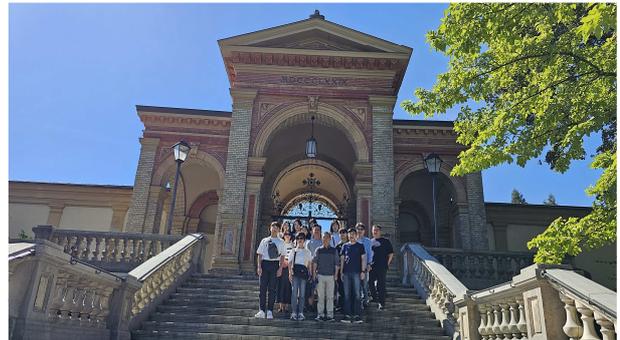
■ 방문 주요 내용

- 코뮤날 시립묘지는 약 25헥타르의 면적과 20,000개 이상의 무덤을 갖추고 있는 잘쯔부르크 주에서 가장 큰 묘지임
 - 매년 약 1,300여건 정도의 안장이 이루어지며, 그 중 약 3분의 1이 화장됨
 - 원칙적으로 법으로 인정된 모든 종교, 신앙 공동체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슬람 종교 공동체도 배려하고 있음
- 19세기 말 도시의 인구 증가와 기존 묘지의 면적이 점차 부족해지면서 기존 묘지 인근에 현재의 시립묘지가 조성되어 입지됨
 - 입지 초기부터 도시녹지의 일부로 계획되었으며, 추모의 장소임과 동시에 주민을 위한 특별한 휴양 공간으로 이용중임
 - 묘지는 철도, 전차 등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시의 외각에 위치하고 있으나, 접근성은 좋은 편임
- 시립묘지는 장사시설로 보여지지 않을만큼 공원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시립묘지 정문은 정원으로 조성됨
 - 시립묘지의 조성 목표는 '숲속 묘지'로 설계되었으며, 도시계획에 포함됨
 - 도시 속 조용하고 푸른 섬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묘지는 지역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음
- 묘지 내부에는 약 1,600그루의 나무가 있으며, 200그루의 나무가 묘지 외부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외부에서는 묘지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음
 - 낙엽수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묘지의 우울한 인상을 피하고자 노력함
 - 낙엽수, 새싹, 꽃, 과일 등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미지를 나타냄



- 시립묘지 내부에는 장례식장, 화장장 등의 시설과 함께 입지함
 - 최근 묘지보다 봉안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함
 - 모역 주변지역에는 조그마한 화단을 조성하여 자연장도 병행하고 있음
- 묘지관리시설에서는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중임
 - 묘지에 안장된 가족이 없더라도 유명인들의 묘지를 둘러보기 위한 방문객이 늘고 있어, 묘지 위치 검색 서비스를 재공중이며,
 - 단순히 공원시설로써의 방문객에 대한 내부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방문당시 많은 주민들이 묘지내부에서 산책이나 조깅을 하고 있었으며, 벤치에서 책을 읽는 사람 등 묘지를 공원으로 인식하고 나름대로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중이었음
 - 공원화된 넓은 구역으로 인해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중이었음

- 국내에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장사시설이 지역민들의 휴식장소로서 역할을 수행중이었으며, 향후 도내 유사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 발생시 좋은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음



5. 체코 중재자 협회

■ 방문 개요

- 기관명 : 체코중재자협회(Asociace mediátorů České republiky)
- 일 시 : 2023. 9. 18.(월), 10:00~12:00
- 담당자 :
- 주 소 : Holečkova 9 150 00 Praha 5
- 연락처 : +420-251-533-461, amcr@amcr.cz
- 홈페이지 : <http://www.amcr.cz/>

úvodní stránka | mapa stránek | prohlášení o přístupnosti

ASOCIACE MEDIÁTORŮ ČESKÉ REPUBLIKY

AMCR MEDIACE MEDIÁTORI SLUŽBY VZDĚLÁVÁNÍ KONTAKTY

O asociaci

Asociace mediátorů České republiky - člen sítě Světového fóra mediátorů je nevládní organizace, která sdružuje profesionální mediátory podporující myšlenku mimosoudního způsobu řešení konfliktů a rozvoje mediálních služeb. Byla založena skupinou mediátorů, facilitátorů a trenérů v r. 2000 a svoji činnost zahájila na počátku roku 2001. Většina jejich členů jsou zkušení odborníci, držitelé řady mezinárodních certifikátů v oblasti komunikace, řešení konfliktů, vyjednávání a mediace.

- [Postání a cíle AMČR](#)
- [Vznik a vývoj organizace](#)
- [Struktura a lidé](#)
- [Dokumenty](#)
- [Přihláška do Asociace mediátorů ČR](#)
- [Ochrana dat](#)

[více »](#)

Oznámení

- Oznamuji praktikujícím mediátorům, že otevírám supervizní mediální skupinku. Zájemci hlase se na amcr@amcr.cz nebo na tel.: 731 228 483. E. Mešková
- AMČR oznamuje všem klientům, že neodpovídá za služby nabízené mediátory, kteří nejsou členové AMČR [více »](#)

Aktuální nabídka

rok 2023:

- [Jednodenní seminář: Mediální techniky v rodičovských konfliktech o děti, Olomouc \(12-23\)](#)
- [Jednodenní seminář: Facilitační dovednosti pro vedení příjádové konference, Olomouc \(14-23\)](#)
- [Jednodenní seminář: Vedení rozhovoru s dítětem \(19-23\)](#)
- [12-ti denní výcvik v Praze, listopad-prosinec \(10-23\)](#)

rok 2024:

- [12-ti denní výcvik v Praze, leden-únor \(1-24\)](#)

[další nabídky »](#)

Mediace

je metoda při níž profesionální prostředník - mediátor - pomáhá znesvářeným stranám obnovit nebo zlepšit vzájemnou komunikaci a hledat způsob, jak vzniklé problémy vyřešit.

[§ Zákon o mediaci »](#) [Zahraniční informace »](#)

[Literatura a články »](#)

■ 방문 주요 내용

- 2012년 체코의회는 zákona o mediaci a o změně některých zákonů (zákon o mediaci)(중재 및 특별 법률 개정(중재법))을 채택하고 공포함
- 중재는 ADR(대체적 분쟁 해결)의 한 형태로, 법원에 갈 필요 없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합법적인 대안을 의미함
 - 중재 절차에는 당사자들과 독립적인 제3자, 즉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 중재자 간의 일종의 비공식 회의가 포함됨
 - 중재는 체코의 분쟁해결을 위한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도구임이 입증됨
 - 법원이 승인한 중재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가짐
- 중재법을 바탕으로 법률이 정한 조건(대학 교육, 정직성) 등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중재인이 될 수 있음
 - 중재인은 체코 법원에 등록되며 갈등을 중재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법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중재인에 대한 신뢰성,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 이렇게 관리되는 중재인들을 중심으로 갈등중재자협회(이하 협회)가 구성되어 있음
 - 협회는 1990년도부터 중재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던 시기부터 설립을 준비하여 2000년 최초 설립됨
 - 설립시 전문가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중재법 재정시 협회가 참여하여 법률재정에 도움을 줌
- 협회는 신청자들의 갈등사안에 대한 중재와 중재에 관심이 있는 분야별(사회복지사, 변호사, 심리학자, 교육자, 관리자, 정치인, 근로자 등) 종사자 및 전문가,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추진함
 - 협회에서 다루고 있는 갈등은 가족간 갈등이 가장 많으며, 고용과 노동, 상업 분쟁 등 또한 다수를 나타냄. 고용과 노동의 경우 회사마다 자체 중재자가 근무중이며, 내부 중재자를 중심으로 중재가 어려울 경우 협회에서 참여중임
 - 교육과 훈련은 참가자의 중재에 대한 이해와 효과, 활용의지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되며, 참가자는 ‘중재 교육 수료증’을 받게 됨

- 협회는 공공계획 추진시 중재가 필요할 경우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중재에 참여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웃분쟁, 학교내 분쟁 등이 있으며, 문화가 다른 인종 갈등(집시 등)에서는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같은 인종의 중재자가 존재함
- 협회는 공공기관의 갈등해결을 위해 문제해결의 솔루션과 협력을 추진 중이며,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체코에서는 중재법 시행 이후 중재를 통한 갈등 해결방식이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중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 중재인은 갈등의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해결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보다는 조정과 합의 과정에 도움을 주며, 이해관계자들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함
- 법원에서는 소송과정에 중재를 통한 해결이 효율적일 경우 판사는 소송전 중재과정을 거치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를 소송에 반영하고 있으며,
- 행정기관, 관련기관, 주민들 역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송보다는 중재를 갈등해결에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재를 위한 갈등중재인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음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체코에서 갈등과정의 중재의 효력은 어떠한가?
 - 체코에서는 소송시 재판전에 법원에서 중재를 권장할 정도로 중재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성이 높음. 법원에서는 조정, 중재를 통한 결과를 수용하고 있음. 조정·중재중 조정은 법원에 등록된 중재인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그보다 낮은 의미인 중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재인이 수행할 수 있음
- 중재과정에서 중재 실패시 대책은 무엇인가?
 - 중재는 갈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재에 참여할지 여부를 묻는것에서부터 출발함. 중재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면 중재과정은 추진될 수 없으며, 대부분 중재과정이나 결과 수용에 어느정도 이해하고 참여하게 됨. 그렇게 때문에 중재는 대부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으나, 중재가 실패할 경우는 소송으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중재를 위한 비용이 필요한가?
 - 중재 신청을 위한 비용이 필요함
- 중재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관공서가 이해관계자인 공공갈등일 경우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 중재의 당사자인 이해관계자끼리 비용 나누어 내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관여되는 공공갈등의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중재인협회의 설립 성격은 어떠한가?
 - 중재인협회는 중재인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임
- 중재인협회의 운영 비용은?
 - 크게 기금과 사용료 등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먼저 기금의 경우 국가간 갈등해결, 자치단체 갈등해결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 유럽연합, 자치단체, 카지도 사용료 등에서 기금을 지원중이며, 사용료의 경우 기관이나 개인 이용자들이 비용을 내고 있음
- 중재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자격을 갖게 되는가?
 - 중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중재자에 지원할 수 있으나, 중재교육 과정 수료자(연구기관의 교육 시스템, 대학 수업 등)에 한해서 국가인증 시험을 거쳐야 함. 국가인증 시험은 법무부에서 관할하고 있음
- 중재인협회의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식은 무엇인가?
 - 교육은 초급, 중급, 고급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됨. 교육대상자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연습문제를 중심으로 상황극, 아이디어 도출 등 중재 과정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협회의 중재위원수는 얼마나 되는가?
 - 체코내에는 1,000명정도의 중재인이 있으며, 협회는 프라하에 등록된 중재인 중 14인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중임
- 한국에는 중재인 제도가 없다. 자치단체에서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면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는가?
 - 체코와 한국은 법 체계, 사회구성 및 분위기 등이 많이 다를 것임. 유사한 중재인 제도가 운영된다면, 중재인을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1. 연수 결과 종합

-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조정·관리하는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음
- 충남도는 도, 시·군, 연구기관간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충남도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이 복잡화·다양화되면서 갈등관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된 ‘2023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선진지 우수사례 공무 국외연수’ 는 획일화된 갈등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갈등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도입과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주요 연수내용으로 독일 푸랑크푸르트의 갈등연구재단,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대학 평화갈등연구소 연수를 통해 전문적 갈등연구,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 스위스 뵈니겐 게마인데 연수를 통해 주민의 직접적인 정책결정 참여와 효과, 공공갈등 요인을 바라보는 주민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습하였으며, 체코 갈등중재협회 연수를 통하여 갈등관리 및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활용 필요성을 공감하였음
- 금번 해외연수는 좀 더 새롭고 충남도에 직접 적용가능한 사례를 학습하고자, 짧은 기간 다양한 국가를 방문하면서 다소 힘든 일정이었지만 충남도, 시·군,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음
- 연수경험을 바탕으로 충남도, 시·군에 필요한 몇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연수의 경험은 조만간 개최될 ‘해외연수 결과 도출 및 역량강화 워크숍’ 을 통해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갈등관리담당관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을 것임

2. 충청남도 갈등관리의 정책적 함의

-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추진
 - 제도적 근거, 주민 인식의 향상 등으로 공공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중임
 - 연수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유럽의 갈등관리 선진국들은 주민들의 인식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편임
 - 예를 들어, 국내에서 대표적 갈등사례인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축산시설 입지 등은 연수국에서는 사회필수시설로 인식하고, 주민 자신도 공공갈등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는 드물었음
 -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변화 촉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
 - 충남도, 시군에서는 공공갈등 발생의 필연성, 갈등의 양면성 등을 중심으로 주민인식 개선, 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과 지속적 운영이 필요할 것임
 - 인식변화 노력과 정책방향 설정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주민-이주민 갈등, 지역내 외부 사업시행자(주민)의 사회필수시설 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공론화와 연구기반 갈등관리 강화 필요
 - 연수기관 대부분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 합의와 조정을 통한 갈등 해결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례들은 선진적인 인식의 확산과 조정의 중요성을 충청남도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실제로 최근 공공갈등의 관리와 조정을 통한 해결 보다는 소송을 통해 종결되고 이러한 결과가 공동체 파괴 등으로 나타나면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어 주고 있음
 - 연수기관들은 각 지역의 정부, 연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으며,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 연구인력을 통합적으로 운영중이었음

- 이를 통한 사회적 갈등의 공론화와 데이터에 기반한 갈등해결방식을 제안하는 전문인력의 활용이 활발하였음
- 충남도는 충남연구원과 갈등관리를 위한 협력관계를 추진중이나, 전문인력의 수가 적어 충남도, 시·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다소 미흡한 편임
- 이에 비교적 풍부한 도내의 교육,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당연구소, 노동조합연구소, 민간연구소, 기업연구소, 대학연구소 등과 갈등연구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각 연구소들은 설립목적에 따라 갈등을 접근하는 방식이나 해결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도내 현안에 대한 담론 형성, 공론화, 이론적 근거에 기초한 갈등해결방안 모색이 이루어진다면,
- 연구결과의 실시간 공유, 합리적 갈등해결 방식의 선별적, 효율적 활용 등이 가능한 대안탐색이 가능할 것임

○ 갈등조정인력의 확대 및 활용 필요

- 현재 우리나라는 갈등을 조정하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충남도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우리동네 갈등해결사 양성 및 활용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음
- 연수기간 충남도, 시·군 갈등담당관들은 유럽의 갈등조정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 활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음
- 국가에서 인증하고 관리하는 갈등조정인력의 활용은 개인간, 국가-개인간 갈등의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갈등중재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성공률 또한 높았음
- 조정·중재가 법률과는 다르게 객관적 자료나 법령에 의한 결정이 아니며, 참여의사, 개인적 관계, 상황등을 참고한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내 갈등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확대될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 이를 위해서는 도내 갈등을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노력해야할 필요성이 있음